

고 학 년 용

여기가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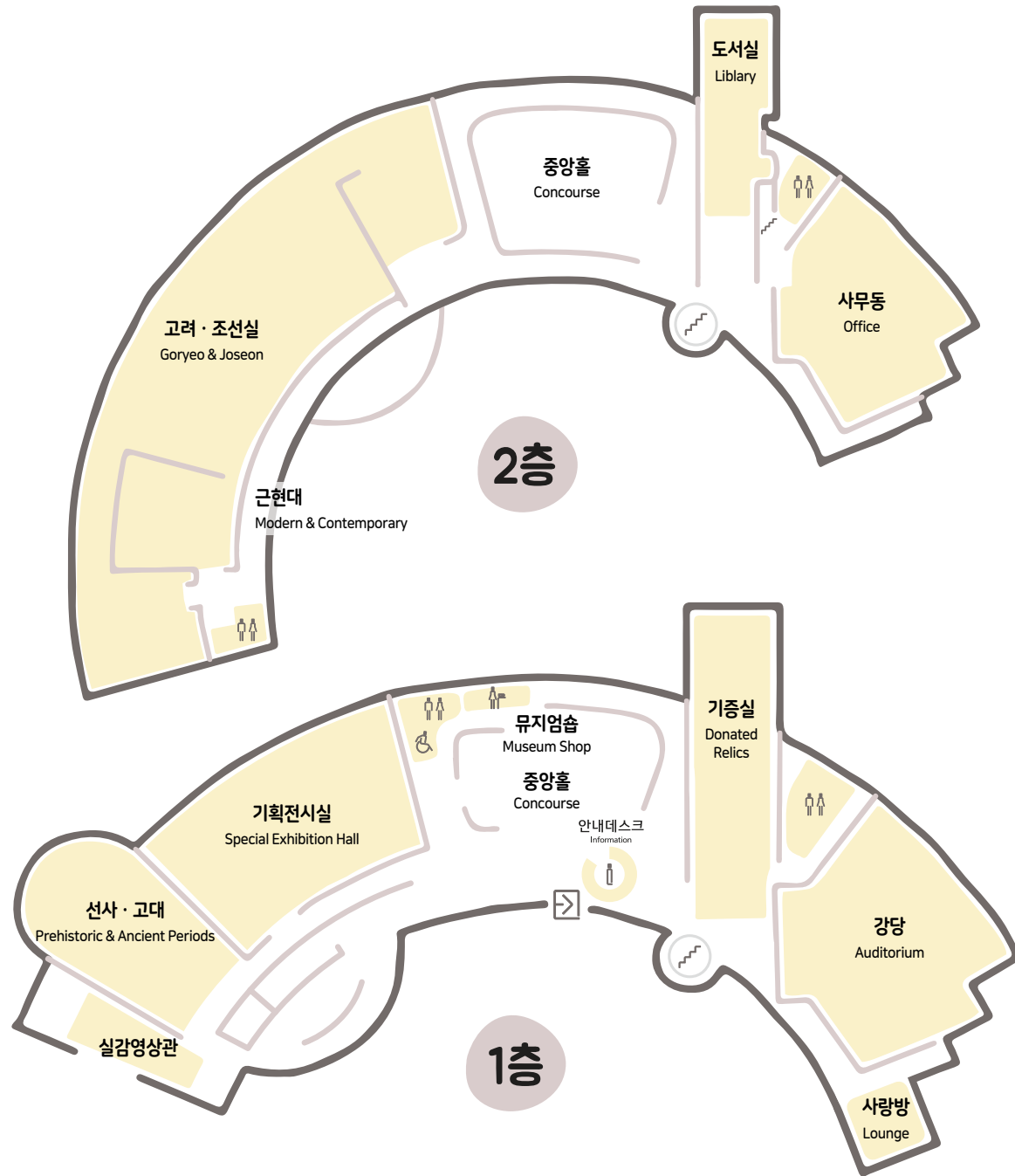
이름

학 교



경기도박물관

박물관 전시실



수유실
Nursing room

안내데스크
Information

출입구
Entrance

화장실
Toilet

장애인 시설
Disabled toi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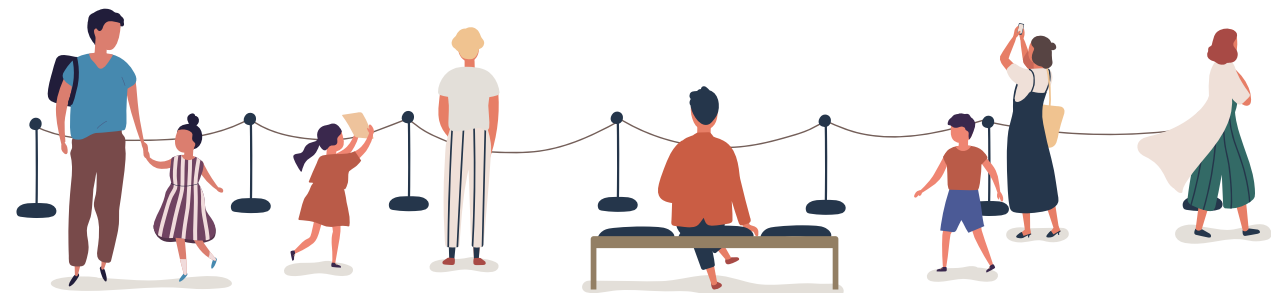
계단
Stairs

목차



다음 중 박물관을 관람하는 모습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다.
- ② 유물 사진을 찍을 때에는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는다.
- ③ 간식이나 음료수 등 음식을 먹지 않는다.
- ④ 짐이 많으면 번거로우므로 팜플렛, 쓰레기 등을 전시실 바닥에 마구 버린다.
- 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람한다.



선사 · 고대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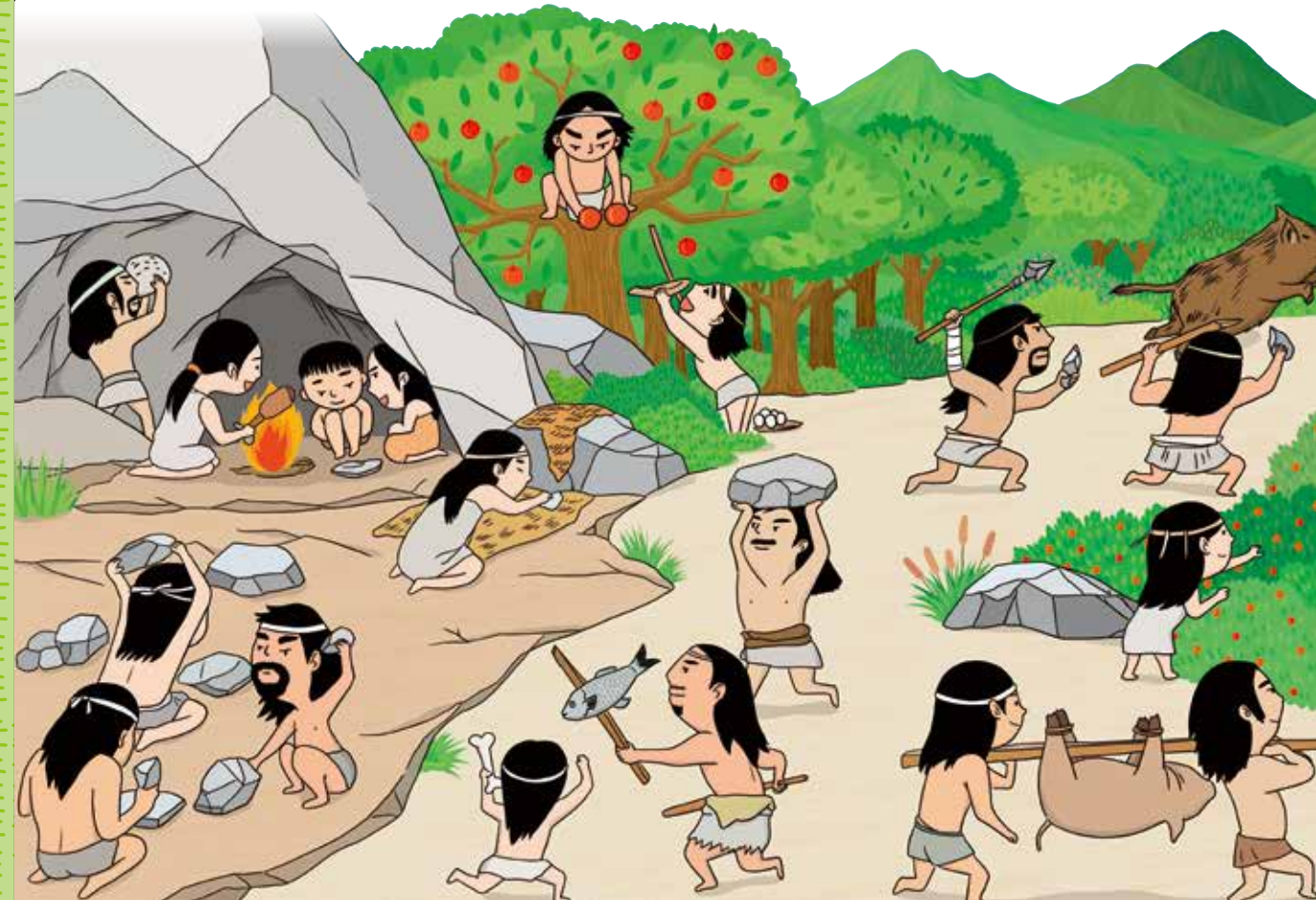
선사시대란 문자가 없던 시대를 말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시대로 구분해요.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서 만든 편석기를 사용했지만,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답니다.

· 구석기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석기시대라고 해요. 석기시대는 다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나뉘어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다른 점을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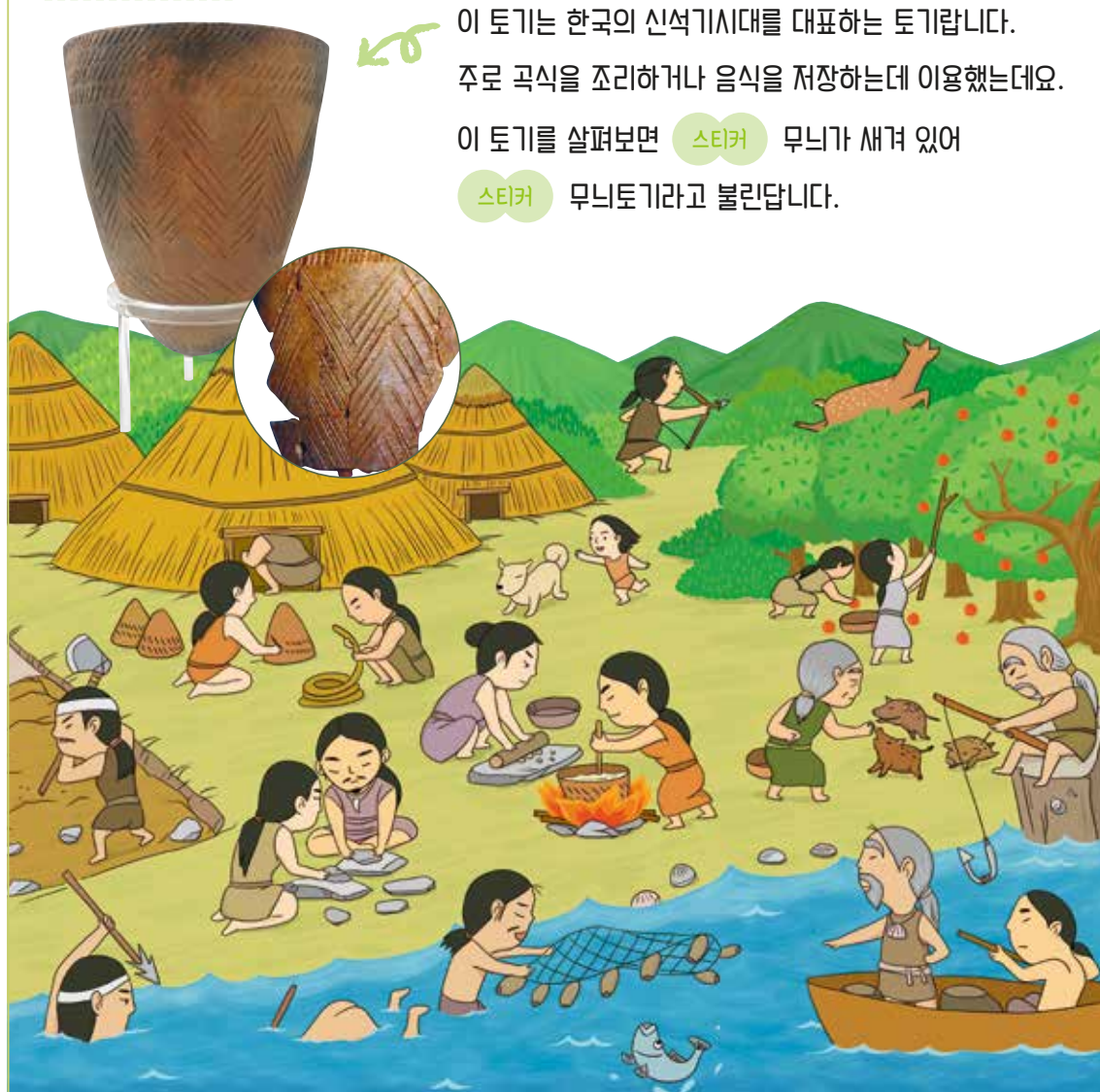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필요한 도구를 자연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큰 돌을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스티커**를 사용했어요.
이 도구는 사냥을 할 때 주로 사용하였답니다.



•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라는 말에는 새로운 석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약 8천년 경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돌을 갈고 다듬은 **스티커** 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주로 돌칼, 돌검, 돌화살촉 등을 제작하여 사냥이나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하였답니다.



이 토기는 한국의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랍니다.
주로 곡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을 저장하는데 이용했는데요.
이 토기를 살펴보면 **스티커** 무늬가 새겨 있어
스티커 무늬토기라고 불린답니다.

•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처음으로 금속도구를 사용한 시대를 말해요. 하지만 청동이 너무 귀해서 주로 청동검 같은 무기나 청동거울과 같은 제사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었습니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마을을 이루어 살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기술도 발달했답니다.





청동기시대의 토기입니다. 표면에 붉은색을 입히고 반들거리게 문질러서 구웠어요. 고인돌과 돌널무덤에서 주로 발견되고 집터에서도 발견된답니다. 이 그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스티커



청동기시대에 널리 쓰인 도구예요. 주로 이삭을 따거나 곡식을 베는 데 쓰던 석기입니다. 반달모양으로 생겨서

스티커

이라 불러요.

스티커

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중 가장 많은 수량의 스티커 이 발견되었어요.



✓ 선사 마무리 노트

전시되어 있는 유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그려보세요.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했던 물건이었을까요?

삼국의 등장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그 중 고구려, 백제, 신라는 주변 세력을 통합하며 영토를 넓혀갔고, 체계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였던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유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백제는 한강과 서해를 통해 주변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고구려**였어요. 고구려는 부여의 주몽이 졸본에 세운 나라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까지 진출하였고, 요동지역과 만주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고구려에 이어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신라**예요. 박혁거세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를 세웠어요. 진흥왕은 한강을 차지하여 신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후 중국과 직접 교류하며 삼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경기 땅에 세운 첫 국가, 백제

✓ 전시실에서 아래의 유물을 찾아서 이름을 적어보세요.



경기도 포천에서 나온 큰 독(항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독에 곡식이나 물을 보관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 독에 보관하고 싶은가요? 보관하고 싶은 물건 3개와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물건 이름	보관하고 싶은 이유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고구려

✓ 아래 유물의 이름과 쓰임을 알아볼까요?



건물의 **스티커** 을 장식하던 **스티커** 입니다.

경기 땅의 새 주인, 신라

✓ 전시실에서 아래의 유물을 찾아서 이름을 적어보세요.



고려

918년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옛 고구려, 백제, 신라뿐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새롭게 확장된 통일국가를 이루었지요. 해로와 육로를 통해 여러 나라와 교류하였으며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천하의 중심 고려, 고려의 중심 경기



고려시대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은 『고려사』와 『**□□□□**』입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생활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 황비창천(煌丕昌天)*이 새겨진 청동거울

고려는 벽란도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발달했어요. 굽이치는 파도 위를 항해하는 배 위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활발했던 교류·무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황비창천(煌丕昌天)* : 맑게 빛나는 하늘





고려시대 사람들은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청자, 대장경, 금속활자 등 고려만의 특별한 문화와 기술이 발달하였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입니다. 몸통에는 공작, 모란, 매화, 대나무, 학, 버드나무가 있는 물가풍경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였던 물건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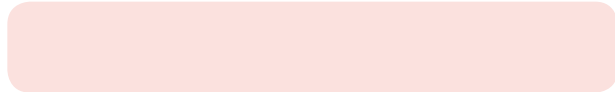
고려시대 귀족들이 잠을 잘 때 사용했어요.
이 유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스티커



거란과 몽골은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여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고려는 병사들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힘을 합쳐 끈질기게 저항하였지요. 또한 대장경을 만들어 부처의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였습니다. 거란의 침입 때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 몽골의 침입 때 만든 것이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입니다.

✓ 전시실에서 아래의 유물을 찾아서 이름을 적어보세요.



고려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어땠을까요?



- ✕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지역에 절을 세우고 연등회와 같은 불교행사를 열었습니다. '봉업사(지금의 경기도 안성)'라는 절은 태조 왕건의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 ✕ 고려시대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남자는 주로 외부활동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키웠어요. 여자들의 외부활동이 자유롭진 못했지만, 재산상속을 받거나 제사를 지내고 부모님을 모시는 일 등은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 고려 마무리 노트

고려시대 사람들은 썬물거리(부장품)로 평소 사용하던 질그릇, 청자, 거울, 동전, 가위, 손가락 등을 넣었어요. 친구들이 어딘가로 멀리 여행을 간다면 어떤 물건을 가져가고 싶은가요? 내가 가져가고 싶은 물건 3가지와 그 이유를 적어볼까요?

_____, _____, _____

조선

1392년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은 새 나라 조선을 건국하고(1392), 수도(도읍)는 한양으로 정했어요. 유교(주자학)를 기본정신으로 하여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명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물을 들여왔습니다.

그림으로 남은 경기감영



스티커 이란 경기관찰사(지금의 경기도지사)가 근무하던 공간을 말합니다. 경기관찰사는 왕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서대문 밖에 있었답니다. 이 그림으로 당시 건물과 주변의 자연환경, 건물, 인물, 거리풍경 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양난의 격전지, 경기

스티커 은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의 기와 무더기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의 방어에 주요한 곳이었지요. 병자호란 때 인조는 이곳에서 청나라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항복했습니다. 201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기와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통일신라 큰기와



조선시대 기와



이완(1602~1674) 장군은 병자호란 때 정방산성에서 적을 크게 무찌른 장군이었어요. 이 유물은 이완 장군이 생전에 사용했던 **스티커** 입니다. 윗부분에 금동 당초무늬가 있고, 무쇠로 만들어서 무거워요.

✓ 사진의 승자총통은 어디에 썼던 물건일까요?

- ① 빨대
- ② 약기
- ③ 망원경
- ④ 전쟁 무기



✓ 조선시대 전시실에서 아래의 유물을 찾아보고 틀린 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3개)



백자 산수무늬 사각병

✓ 조선시대 사람들이 썼던 물건입니다. 가장 비슷한 요즘 물건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해***



갓



나막신



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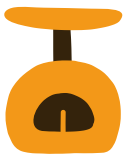
계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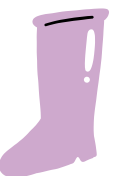
시계



모자



저울



장화



뽕 석 기

고 인 돌

고 인 돌

반 달 돌 칼

빗 살

간 석 기

빗 살

기 와

붉 은 간 토 기

여기가
경기

투 구

지 붕

남 한 산 성

베 개

고 려 사 절 요

경 기 감 영



경기도박물관